



청년이 만든 청년靑年 2025

<청년이 만든 청년靑年 2025>



# Prologue

불은 가장 뜨거울 때 푸른 빛입니다.

가장 치열한 순간

가장 고요한 빛을 품는 색, 청

청년靑年의 푸름 또한

그러한 시간을 닮았습니다.

치열하기에 붉음을 넘어선 기세,

불안정하기에 더 멀리 비추는 빛입니다.

젊음은 넘어짐 속에서 길을 찾고,

도전은 상처 위에 뜻을 세우며,

열정은 끝내 불을 지켜냅니다.

2025년, 경남의 청년들은

각자의 푸른 불을 가슴에 품고

‘경남청년네트워크’라는 같은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성과의 나열이 아니라,

불꽃들이 남긴 8개월간의 흔적.

그 아름다운 궤적을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Prologue

1

PART 1

## 경청넷 소개

- 10 01. 경남청년네트워크란?
- 12 02. 경남청년네트워크 조직도
- 14 03. 경남청년네트워크 연혁
- 16 04. 2025 경청넷 소개 및 구성

2

PART 2

## RENEWAL 2025 경청넷

- 20 01. Since 2025 ; 달라진 경청넷
- 22 02. [Q&A]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청년참여파트
- 26 03. 한눈에 보는 2025 경청넷

PART 3

## MISSION POSSIBLE ; 월별 미션

3

- 37 01. 4월 : 온라인 자기소개 “나는 경남 ○○ 청년입니다”
- 40 02. 5월 : [1차] 청년이 소개하는 청년공간
- 44 03. 5월 : [2차] 나의 아이디어로 청년을 이롭게
- 46 04. 7월 : [1·2차] 청년정책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 48 05. 8월 : 2025 경남청년 페스타(청년의 날) 아이디어 제시
- 52 06. 11월 : 청년포럼 참석 및 토론 주제 관련 논의
- 56 07. 12월 : [1차]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활동성과 정리
- 58 08. 12월 : [2차]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 결선 참석  
및 후기 작성

PART 4

## 2025 경청넷 활동 기록 ; 함께 한 순간들

4

- 62 01.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워크숍
- 68 02. 2025 경남청년 페스타
- 74 03. 도-시군 청년네트워크 청년마을 현장견학
- 80 04.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대회

Epilogue



PART 1

# 경청넷 소개

- 01. 경남청년네트워크란?
- 02. 경남청년네트워크 조직도
- 03. 경남청년네트워크 연혁
- 04. 2025 경청넷 소개 및 구성

미디어에서 찾은 경청넷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문제나 고민들을 정책으로 만들고 제안하며  
다양한 청년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경남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 플랫폼”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인터뷰 중 /  
이뉴스투데이.2025.11.11.-

“경남청년네트워크는 경남의 미래를 여는 힘,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교류하는 장”

-경남청년 공식 네이버 블로그-

“청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도정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 플랫폼”

-경남도민일보 2024.-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

-연합뉴스 2020.-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는 근거 조례인

1)‘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민관 협치기구”

-노컷뉴스 2024.-

1)경상남도 청년기본 조례 ;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 설명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5. 6. 12.][경상남도조례 제5863호, 2025. 6. 12., 전부개정]

제12조(청년네트워크)

-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 4. 그 밖에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④ 청년네트워크의 회의 또는 활동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SINCE 2019

## 훑어보는 경남청년네트워크 6년



##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톺아보기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는

경상남도 청년 정보플랫폼([www.gyeongnam.go.kr/youth](http://www.gyeongnam.go.kr/youth))을 통해 공개 및  
수시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도정에 적극 참여하여 활기찬 경남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로 모집한 결과 총 380명의 청년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2025 경청넷은 구성원들의 모임을 조직하기 위해 희망 모임 조사를  
실시해 인원을 고르게 배분했으며, 약 8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정책 제안  
활동과 월별 참여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도정 참여와  
소통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6 개 분야

모임 수

380 명

(남 164명 여 216명)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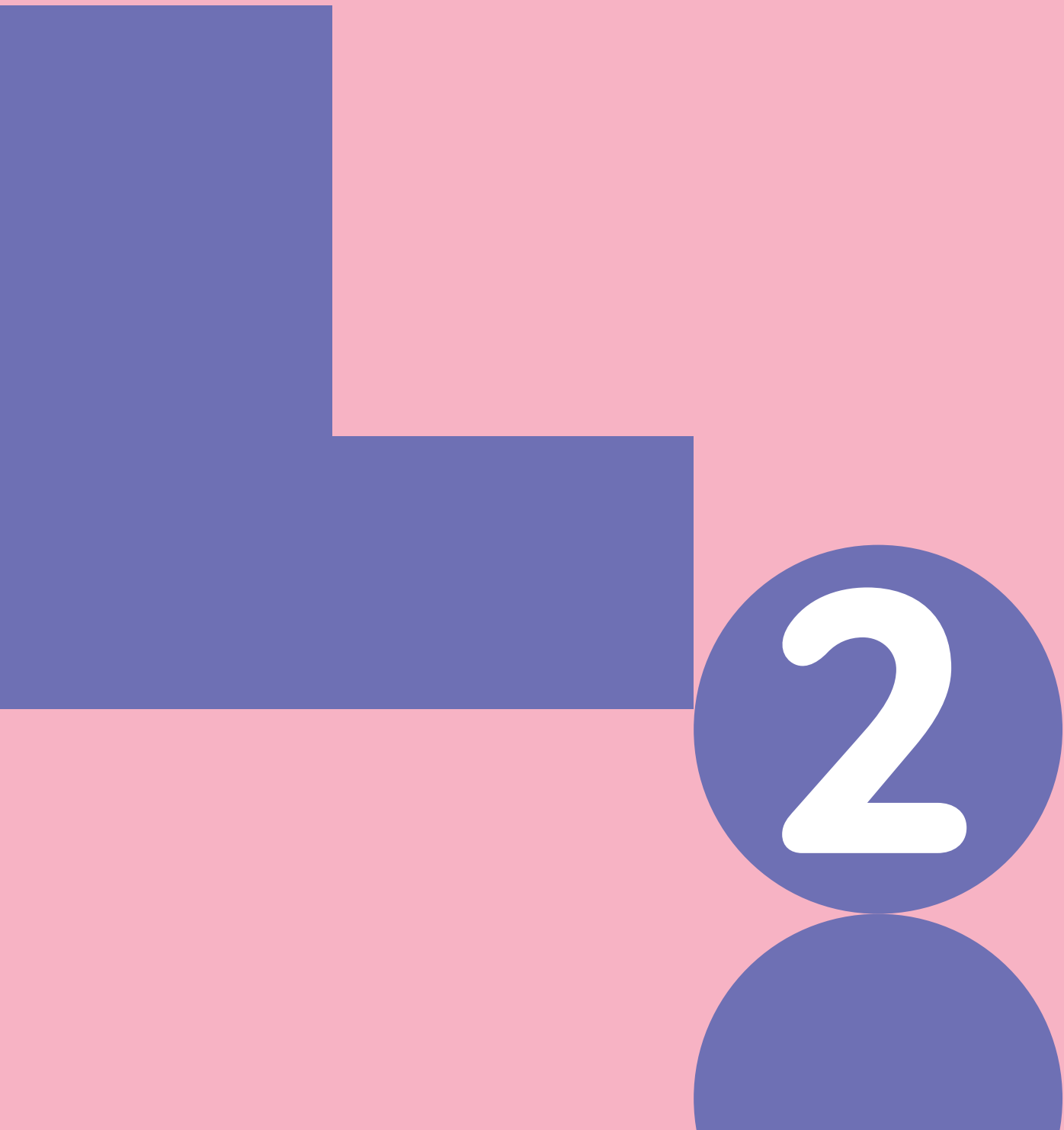
9 회

월별 참여 미션

34 개

제안 정책 수





# 2

PART 2

## RENEWAL 2025 경청넷

- 01. Since 2025 ; 달라진 경청넷
- 02. [Q&A] [Q&A]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청년참여파트
- 03. 한눈에 보는 2025 경청넷



2025년, 경청넷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운영 방식과 조직 구성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청년들의 참여 방식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틀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발굴과 도정 참여가  
활발히 이어진 2025년 경남청년네트워크.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Before & After

|       | ~2024년                            |                  | 2025년~                           |
|-------|-----------------------------------|------------------|----------------------------------|
| 명칭    |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 변경               | 경남청년네트워크                         |
| 회원모집  | 신규모집                              | 확대               | 신규모집 +<br>월별 수시모집<br>(인원 제한 없음)  |
| 조직 구성 | 분과<br>실무운영팀(퍼실리테이터)<br>·분과장·정책자문단 | 폐지<br>및<br>변경·신설 | 모임<br>모임지기                       |
|       | 정책제안 위주 활동                        | 변경               | 정책 제안 참여 및<br>소통 활동 강화           |
| 운영 방식 | 분과·운영회의 등<br>오프라인 회의 위주           | 변경               | 온오프라인 회의와<br>활동 병행               |
|       | 정책제안 위주 활동                        | 확대               | 정책 제안 및 모임별<br>월 1~2회 자유로운 미션 활동 |



[Interview]

2025 경청넷의 변화

그것이 알고 싶다



Q. 2025 경청넷의 변화 배경은?

2025년부터는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명칭이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청년들의 참여와 교류를 포괄하는 ‘경남청년네트워크’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정책 제안뿐 아니라 소통·활동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Q. 개선 방향은?

경청넷은 참여와 소통 중심으로 운영하여 도내 청년들의 활동 참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집은 기존의 정기 모집 방식에 더해 월별 수시 모집을 병행함으로써 개방성을 높였으며, 청년정보플랫폼과 SNS, 화상회의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 회원모집 방식을 확대한 이유는?

회원 모집을 기존의 정기 모집에서 월별 수시 모집으로 확대한 이유는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참여 의지를 보다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시기에만 기회를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이 경청넷 활동에 쉽게 접근하고 고정 참여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운영진 변화의 이유는?

2025년 경청넷부터는 실무운영팀이 폐지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진 중심에서 회원 전체가 함께 운영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했습니다.

Q. ‘분과장’이 ‘모임지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역할은?

새롭게 도입된 모임지기는 각 모임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임지기는 모임을 실질적으로 이끌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을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회원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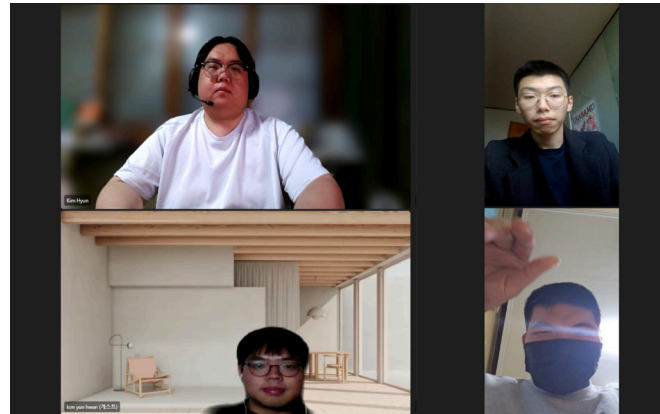


### Q. 운영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활동 강화한 이유는?

운영 방식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전환한 이유는 도 내 전 시군 청년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 더 많은 청년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정보플랫폼, SNS, 화상회의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확대했습니다.

### Q. 활동 범위에도 변화가 있다. 내용은?

2025년부터 경남청년네트워크는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의 정책 제안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정책 제안과 더불어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도정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자유로운 미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반영하고 활기찬 경남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Q. 경청넷의 주된 역할인 청년정책 제안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한 의견은?

일부에서 '이제는 청년정책을 제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청년네트워크는 여전히 정책 제안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참여와 소통 활동, 도정 모니터링, 자유로운 미션 수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정책 제안은 계속되면서도 청년들의 의견이 더 폭넓게 반영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이 강화된 것입니다.

### Q. 경청넷이 수행한 월별 미션의 선정 기준은?

경남청년네트워크의 월별 미션은 단순히 형식적인 과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과 도정의 주요 현안을 반영해 주제를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주거, 일자리, 교육 같은 생활 밀접 분야를 다루거나, 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했고,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론과 교류, 현장 체험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포함했습니다. 즉, 월별 미션은 도정 현안 반영·참여 확대·소통 중심·자율성 보장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 제안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도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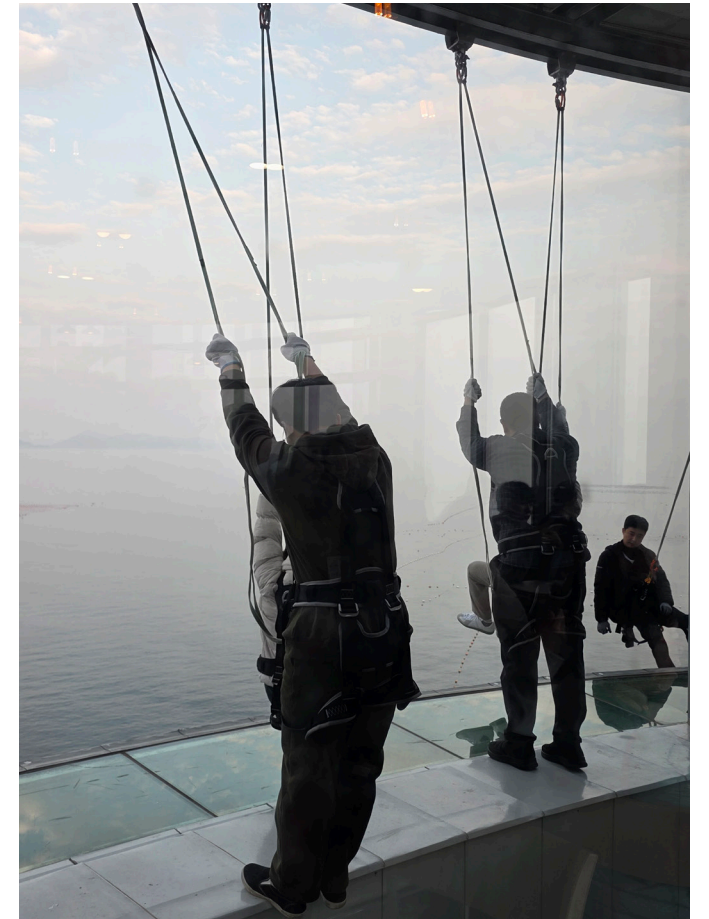


### Q. 2025 경청넷이 수행한 월별 미션 내용은?

실제로 진행된 미션은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기존 정책의 만족도 조사와 개선 의견 제출, 청년공간 소개, 청년페스타 아이디어 제시 및 청년포럼 참석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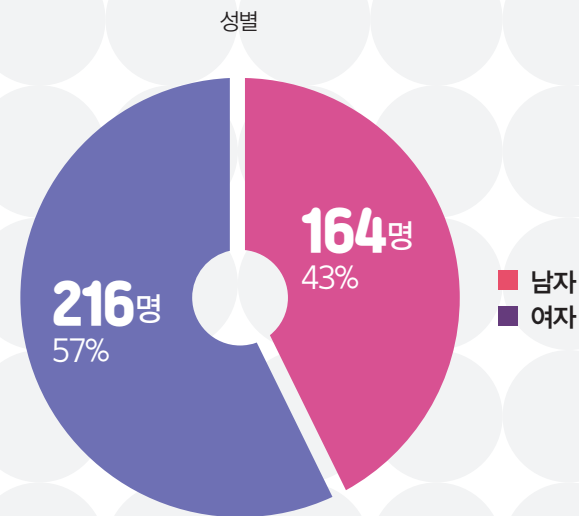
### Q. 2025 경청넷을 마무리한 소회

2025년 경남청년네트워크는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남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속에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운영 방식의 변화가 현장에서 잘 안착했고, 다양한 미션과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폭넓게 반영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고, 정책 반영과 교류 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경남 청년들의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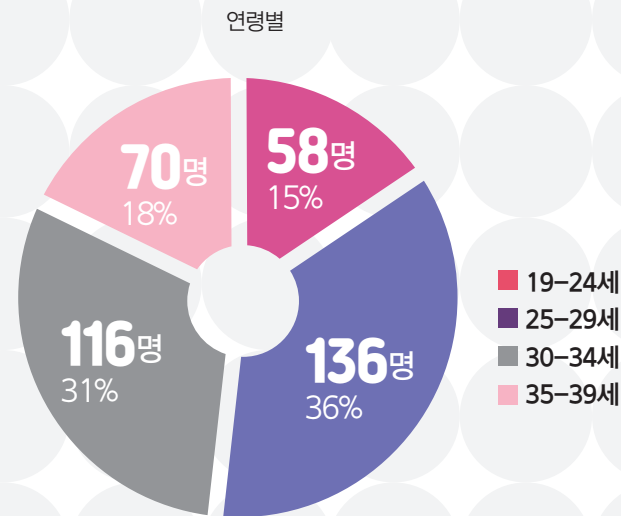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2025 경청넷



성별(남자 43% / 여자 57%)



연령 평균 29.5세





분야\_ **교육**

인원\_ **58**명

모임별 회의\_ **4**회

주요활동\_ 도내 대학 및 대학생 지원, 청년 평생 교육 지원

분야\_ **일자리**

인원\_ **74**명

모임별 회의\_ **7**회

주요활동\_ 청년 일자리, 취업 지원, 청년이 원하는 기업 문화 제안

분야\_ **문화예술**

인원\_ **86**명

모임별 회의\_ **4**회

주요활동\_ 문화 향유자로서 청년문화 활성화

분야\_ **주거복지**

인원\_ **56**명

모임별 회의\_ **5**회

주요활동\_ 청년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생활 안정

분야\_ **참여권리**

인원\_ **48**명

모임별 회의\_ **7**회

주요활동\_ 청년 공익활동 지원 및 청년활동 활성화

분야\_ **창업**

인원\_ **58**명

모임별 회의\_ **2**회

주요활동\_ 청년창업가 지원 및 교육, 청년 창업 활성화



## 정책 제안

중국 고사성어 중에 ‘취사성탑(聚沙成塔)’. ‘모래를 쌓아 탑을 만든다’는 뜻의 중국 고사성어입니다. 아주 작은 모래알도 모이면 큰 탑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로, 작은 힘이나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 청년들이 각자 작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모아 큰 정책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기에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경남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청년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경남청년네트워크에게 ‘취사성탑’의 해였습니다. 회원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문제와 필요를 담아 총 34건의 정책 제안을 제출했는데, 이후 모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교육모임 1건, 문화예술모임 3건, 일자리모임 1건, 주거복지모임 1건, 참여권리모임 1건을 채택하여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들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2025 경청넷의 활동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며 도정에 직접 목소리를 반영하는 성과로 기록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참여의 장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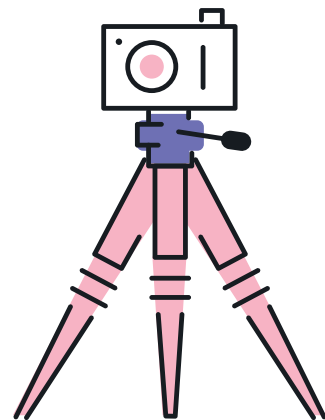
### 제안내용

- 청년 실전생활 교육 아카데미 개설 → 교육(청년정책과)
- 청춘 프로젝트 '청춘어람' 운영 → 문화예술(청년정책과)
- 크리에이터 캠프 운영 → 문화예술(문화산업과)
- 청년 북살롱 & 북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추진 → 문화예술(대표도서관)
- 가칭 '코드로 상생 프로젝트'운영 → 일자리(청년정책과)
- 경남형 청년기본소득 도입 → 주거복지(청년정책과)
- 농촌인력지원 사업 수혜 대상 확대 → 참여권리(농업정책과)

### 채택모임 (소관부서)









# 3

PART 3

## MISSION POSSIBLE ; 월별 미션

- 01. 4월: 온라인 자기소개 “나는 경남 ○○ 청년입니다”
- 02. 5월: [1차] 청년이 소개하는 청년공간
- 03. 5월: [2차] 나의 아이디어로 청년을 이롭게
- 04. 7월: [1·2차] 청년정책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 05. 8월: 2025 경남청년 페스타(청년의 날) 아이디어 제시
- 06. 11월: 청년포럼 참석 및 토론 주제 관련 논의
- 07. 12월: [1차]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활동성과 정리
- 08. 12월: [2차]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 결선 참석 및 후기 작성

## 2)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월별 미션 활동

2025 경청넷은 새로운 방식으로 한 해를 채워갔습니다. 월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이전과는 다른 운영 방식 속에서 낯설과 신선함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기존 회원에게도, 처음 참여한 회원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곧 적응해 나가며 점차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장된 운영은 시간과 공간 등의 접근성을 크게 넓혀주었습니다. 청년정보플랫폼 내 미션활동 코너에 남긴 글들은 성과가 되었고 기록으로 남았으며, 그 과정 자체가 경남의 빛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총 8개의 미션을 수행한 8개월의 여정은 서투름 속에서도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 무엇보다 빛나는 청년들의 발자취로 이어졌습니다. 미션 활동으로 푸르게 물든 경남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이 담긴 기록, 그 생생한 순간들의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2) 더 많은 게시글은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년정보플랫폼 인터넷 홈페이지 > 참여권리 > 경남청년네트워크 > 청년활동 > 미션활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 4월 : 온라인 자기소개 “나는 경남 ○○ 청년입니다”

### Mission 1.

## 4월 [온라인 자기소개] “나는 경남 ○○ 청년입니다”



미션 내용

자기소개 게시글(필수 문항과 2개 이상의 선택 문항 포함)을 플랫폼 내 미션활동 게시판에 공유

#### 자기소개 항목

필수 문항 : 본인 한 줄 소개(“나는 경남 ○○ 청년입니다.”)

선택 문항

- 나의 MBTI는?
- 나의 취미 혹은 관심사
- 경남청년네트워크에 가입한 이유(정책제안, 행사 참여, 소통 및 교류 등)
-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 월별 미션 활동에서 제안하고 싶은 활동
- 기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글, 사진, 동영상 등

40명

참여인원

교육 4, 문화예술 19, 일자리 3, 주거복지 5, 참여권리 7, 창업 2





### "나는 경남 커피챗 좋아하는 정책 청년입니다!

나의 MBTI? ESTP  
나의 취미 및 관심사?  
컨벤션 방문(백스코), 스포츠 관람 (축구, 야구, 농구 등), 영화, 박물관 등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경남청년네트워크에 가입한 이유?  
양산시 청년정책단에서 활동하며 정책 제안을 해오던 중, 다른 지역의 청년 정책단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 궁금해져 경남청년네트워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시야에서 청년 정책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지역 일자리와 청년 창업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미 진학 청년(미청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 중심의 활동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 관계자나 HR 담당자들과 함께 커피챗(Coffee Chat) 형식의 소규모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와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활동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월별 미션 활동 제안?  
우선 기존 멤버들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경남청년네트워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제가 관심 있는 일자리 및 창업 관련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기타 자기소개?  
양산시 청년정책단에서 3년 간 활동하며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하며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면서, 더 큰 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 결과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장(표창장)까지 수상하며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더 잘하고 싶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열정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활동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공은 경제 학이고, 사회 복지(증북)쪽으로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창업 ing.  
분과 지원 -> 1. 일자리 분과

### 나는 경남에 평생 살고 싶은 청년입니다.

나의 MBTI는?: INFJ  
나의 취미 혹은 관심사: 고양이,디자인,예술  
경남청년네트워크에 가입한 이유: 청년들과 소통 및 활동

<희망모임>  
1순위: 문화·예술 모임  
2순위: 창업 모임

### 나는 경남을 변화 시키고 싶은 청년이다.

1. 경남청년네트워크에 가입한 이유  
저는 '정책'이라는 단어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약속일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 간의 묵묵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의미 안에 담긴 가능성과 책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며, 직접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남청년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청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하고, 실패도 겪으면서 성장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2.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글  
저는 밤하늘의 작은 별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별은 언제나 하늘에 있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반짝입니다.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나침반이 되어 방향을 알려주고, 지친 이들에게는 말없이 위로가 되어 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존재, 세상에 큰 울림을 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곁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따뜻한 시선과 성실한 마음으로, 제가 속한 곳을 조금씩 밝히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1순위 희망 모임 : ⑤ 교육 모임  
2순위 희망 모임 : ⑥ 참여·권리 모임

### "나는 경남을 경남답게 만들어가고 싶은 청년입니다."

나의 MBTI는?  
활동할 땐 ENFJ, 일할 땐 INTJ  
일을 활동처럼, 활동을 일처럼 하고 싶은 젊은 꼰대..?

나의 취미 혹은 관심사  
나 다운 것을 찾는 걸 좋아합니다.  
- 전통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전통매듭을 취미로 했고, 생활한복도 좋아합니다.  
- 나답게 쉬는 것 좋아하구요,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 김장하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범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은 나를 찾고 있습니다.

경남청년네트워크에 가입한 이유(정책제안, 행사 참여, 소통 및 교류 등)

2021년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분과 분과장을 시작으로 22년~24년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분과 담당 실무운영팀을 해오며, 경남에서 문화를 향유하고싶은 청년과 청년예술인들 그리고 문화인프라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과 함께 경남의 문화생활의 실태와 현황, 청년예술인들의 지역에서의 기회와 활동에 이야기를 나누며 경남의 청년문화정책을 발굴하고자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마음 맞는 분들과 경남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류하며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보거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함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청년들을 만나고싶습니다!

현재 문화기획전공으로 석사과정 재학중이며 문화기획, 지역문화, 문화산업,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에 관심 있습니다. 기획자이자 연구자로서 경남의 문화와 지역정체성 등 다양한 분야 의 인사이트를 나누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습니다. 무형유산과 관광에도 관심이 많아요! 도시를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데 이야기를 나눌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별 미션 활동에서 제안하고 싶은 활동  
경남의 관광지와 문화생활이 가능한 곳에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경남청년들의 눈으로 관광지와 문화공간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활동

희망모임  
1순위: 문화·예술 모임  
2순위: 참여·권리 모임



### 나는 경남 오사가 청년입니다.

우연찮게 일본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 압도적인 경제규모를 자랑했지만 그와 다르게 오사카도 도쿄에 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인프라와 규모를 가지고 있었음에 놀랐습니다.

내가 만약 일본 청년이었다면 꼭 도쿄에서만 살아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사카라는 훌륭한 인프라속에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남도 제2의 수도 수준처럼 강력한 성장을 통해 청년들이 터잡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상을 하며 경남 오사카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남 청년을 꿈꿉니다.

경남청년네트워크에 가입한 이유(정책제안, 행사 참여, 소통 및 교류 등)

교류를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정책 제안도 정말 좋지만 교류와 소통의 장이 많았으면 합니다.

### 나는 경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청년입니다.

경남청년네트워크에 가입한 이유  
경남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취직 했습니다. 한강을 끼면서 살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어 지방이 침체되고 지역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마저도 되돌아갈 만한 트리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속된다면 더욱 지방은 잊혀져갈 것이라 판단했고, 이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글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거주하며 강남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한강을 따라 출근하다보면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부족하겠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자문단과 서울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 관심이 생겨 정책지원관 교육과정을 수강하며 정책제안에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Mission 2.

### 5월 [1차] 청년이 소개하는 청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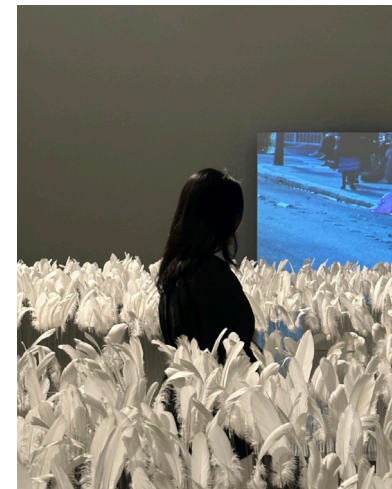


미션 내용

33명  
참여인원

- ① 경남공간을 모임별 또는 개별적으로 방문한 후
- ② 모임별 회의를 통해 방문후기 및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 ③ 경남 청년정보플랫폼에 '공간후기'를 작성하세요.
- ④ 개별 또는 모임별 미션 수행 후 단체채팅방에서 회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날짜와 장소 등을 결정하여 모임원들과 경남공간에 대한 방문후기를 공유하고, 각 공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 ⑤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모임지기를 선정하여 주세요.

교육 5, 문화예술 12, 일자리 4, 주거복지 8, 참여권리 4



**[5월 미션] 「청년이 소개하는 경남공간」 경남도립미술관 방문 후기입니다.**

- 일시 :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10:00-12:30
- 장소 : 경남도립미술관
-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전시 관람 및 문화예술 모임 1차 회의 진행

#### ◆ 공간 방문 후기

- 미술관 내부가 깔끔하고 넓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 조경 및 정원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듯 합니다.
- 각 층마다 넓은 공간과 작품 간격이 넓어 배치가 자유로워 좋았으나, 전체적으로 전시 관람 방향에 대한 안내가 없어 작품 배치 의도대로 동선 방향을 안내해주는 장치가 더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 이번에 관람한 전시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는 경남에 거주하는 이주민, 재한외국인의 다양한 생활 모습과 문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선주민으로서, 외국인주민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문화 다양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내용의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아쉬웠던 점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설명이나, 리플렛, 공간 안내 등이 부족해 외국인 관람객이 전시를 보러왔을때 어려움을 겪을수 있을것 같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시를 관람한 날, 도립 미술관 앞 도청 마당에서는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관람 또는 전시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문화예술모임 1차 회의 후기

- 문화예술 1차 회의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분과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전시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각자 지역의 현황이나 본인 소개하는 자리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5월 미션] 양산시 청년센터 '청담' 방문후기

◎방문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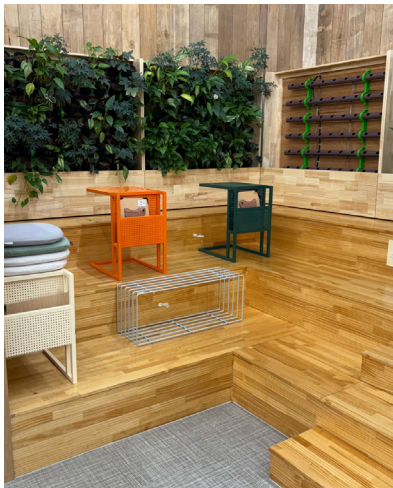
- ▶장소명 : 양산시 청년센터 '청담'
- ▶위치 :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14, 통합관제센터 1층
- ▶운영시간 : 월 10~18시, 화~금 10~21시, 토 10~19시
- ▶SNS : [instagram.com/yangsan\\_youthcenter](https://www.instagram.com/yangsan_youthcenter)
- ▶관련사이트 : [litt.ly/ysyouthcenter](https://litt.ly/ysyouthcenter)

◎센터 시설

- ▶접근성 : 남양산C 진입부에 위치,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1분 거리
- ▶인근시설 : 카페, 음식점, 우체국, 고용노동부 등
- ▶주차관련 : 센터 앞 주차공간, 주변의 노상주차장 이용 가능.
- ▶공간관련 : 스터디룸, 다목적홀, 열린센터장실, 강의실, 서가, 오픈키친, 화장실 이용 가능

- ◎방문일시 : 5월 16일(금) 19시 30분~20시
- ◎방문목적 : 경남청년네트워크 5월 개인 미션 수행
- ◎방문후기

- ▶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청년센터 '청담'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업무차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공간에 대한 후기를 남기기 위해 센터 곳곳을 살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 ▶다소 청년센터 답지 않은 외관과 달리, 내부는 흰색 벽지와 원목 가구가 배치되어 모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다목적홀은 넓찍하게 트여있어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 ▶상주하는 직원들은 청년의 방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워낙 많이 방문하여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방문한 시간대가 다소 늦은 저녁이었으나 센터에는 스터디룸을 사용해 삼삼오오 스터디하는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 ▶센터 한 편에 위치한 서기는 공간분리가 잘 되어 있고, 도서의 수가 상당히 하여 마치 행정복지센터의 '작은 도서관' 같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으로 드나드는 청년을 배려하는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멀리로 깔린 음악이 잔잔하게 들려 몰입도 높은 독서가 가능합니다.
-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포스터가 잘 정돈되어 게시되어 있습니다. 청년도 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양산 청년 희망하이패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 사업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 ▶다만, '창원청년비전센터', '김해청년센터' 다음에 비하여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좁은 분야(일자리, 네트워킹)에 국한된다고 느껴집니다. 청년인구의 차이에 따른 사업비 규모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덧거리 및 경남대 방문 후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경남공간은 경남 창원 덧거리 일대 입니다.

경남 창원 덧거리 일대 방문기 -  
청년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간적 제안

경남 창원시 마산의 중심지에 위치한 덧거리 일대는 경남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상업 지역입니다. 카페, 식당, 술집 등 다양한 자영업 기반의 공간들이 즐비해 있어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며, 특히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경남청년네트워크 교육본과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 지역은 청년의 일상 소비에는 적합하지만 학습과 창작,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현장을 둘러본 결과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학습 커뮤니티 공간, 소규모 강연과 워크숍이 가능한 공유 스튜디오, 창업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봅니다. 이는 덧거리의 상업 중심적 구조가 일시적인 소비와 방문에는 유리하지만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성은 제한적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마산의 역사와 예술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나 로컬 콘텐츠 창작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결합된 교육·문화 콘텐츠가 활성화된다면 덧거리는 단순한 소비의 장소를 넘어 청년과 지역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들을 위한 배움과 실천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유동 인구를 위한 소비 기반을 넘어서 청년의 가능성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창작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덧거리가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변모하기를 바라며 지역 공동체와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Mission 3.

### 5월: [2차] 나의 아이디어로 청년을 이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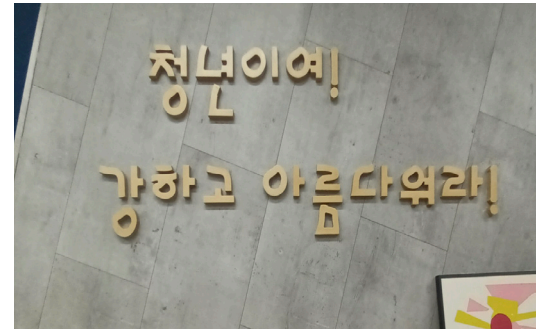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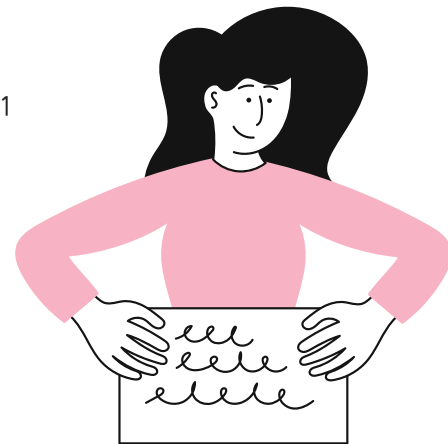


미션 내용

35명  
참여인원

- ①제목 : 분야 및 사업명을 작성해주세요. (ex.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군 확대)
- ②내용 : 아래 작성서식에 따라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등을 300자 이상 작성해주세요.
- ③미션수행 방법  
개별적으로 경남 청년정보플랫폼 내 청년소통마당에 ‘청년제안’을 작성한 후  
모임별 회의를 통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남 청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회의록에 작성해주세요.(모임별 1~3건 정도)

교육 6, 문화예술 13, 일자리 4, 주거복지 7, 참여권리 4, 창업 1



2차 미션 ‘나의 아이디어로 청년을 이롭게’를 통해 그간 품고 있었던 경청넷의 청년 제안 아이디어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2025년 9월 당시 6개 분과 316명이었던 경청넷 회원들이 경남 청년정보플랫폼 청년소통마당에 게시한 청년 제안 아이디어 총 34건 중 총 7건이 채택되었고, 경남도 소관부서에서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장기 검토 과제로 이어졌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성과였던 ‘made by 경청넷’의 제안 7건을 공개합니다.

| 연번 | 제안내용                                                                                                                                      | 채택모임<br>(소관부서)             | 검토<br>결과 |
|----|-------------------------------------------------------------------------------------------------------------------------------------------|----------------------------|----------|
| 1  | <b>청년 실전생활 교육 아카데미 개설</b><br>- 창업·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금융·계약·건강·세무 등 실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아카데미 개설 필요                                               | 교육<br>(청년정책과)              | 일부<br>수용 |
| 2  | <b>청춘 프로젝트 ‘청춘어람’ 운영</b><br>-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관광 체험 및 환경개선 활동 제안. 농촌 일손돕기, 문화교류, 새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 기대 | 문화예술<br>(청년정책과)            | 일부<br>수용 |
| 3  | <b>크리에이터 캠프 운영</b><br>- 유튜브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과 교류를 결합한 청년 프로그램 제안. 커를 아트 챌린지, 로컬 데이트 브이로그, 토크콘서트 등으로 청년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지역 홍보 도모              | 문화예술<br>(문화산업과)            | 일부<br>수용 |
| 4  | <b>청년 북살롱 &amp; 북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추진</b><br>- 청년 주도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책가방 창작 활동 지원. 북살롱, 책 크리에이터 양성, 작가와의 창작교실, 북큐레이션 등으로 독서 생태계 조성과 청년 문화역량 향상        | 문화예술<br>(대표도서관)<br>(청년정책과) | 일부<br>수용 |
| 5  | <b>가칭 ‘코드로 상생 프로젝트’ 운영</b><br>- 청년·소상공인이 함께하는 해커톤 형식의 디지털 협업 프로그램 제안. 실무형 프로젝트 경험과 멘토링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협업 역량을 키우고, 지역 상생형 커뮤니티 형성 기대          | 일자리<br>(청년정책과)             | 일부<br>수용 |
| 6  | <b>경남형 청년기본소득 도입</b><br>- 19~39세 청년에게 분기별 2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과 삶의 질 향상 기대                                       | 주거복지<br>(청년정책과)            | 장기<br>검토 |
| 7  | <b>농촌인력지원 사업 수혜 대상 확대</b><br>-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농촌인력지원사업을 청년으로 확대 운영 필요. 농·어·산촌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이 재능기부·일손돕기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청년 네트워크 형성 효과 기대        | 참여권리<br>(농업정책과)<br>(청년정책과) | 일부<br>수용 |

04. 7월 : [1·2차] 청년정책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 Mission 4.

## 7월: [1·2차] 청년정책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 미션 내용

‘청년정책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남청년으로서 청년정책 전반(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미션으로 모니터링 결과는 이후 현재 정책을 보완하고 청년 중심의 청년정책으로 개선하는데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될 예정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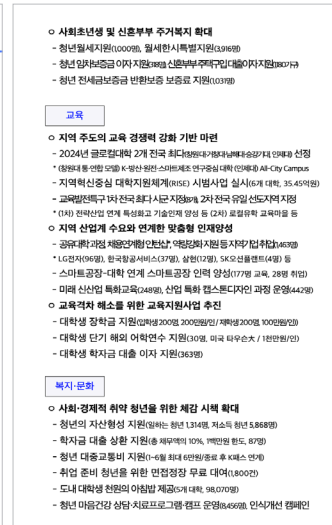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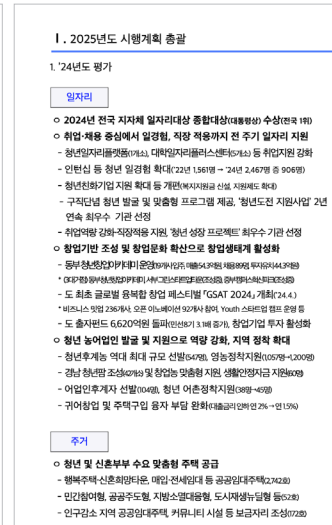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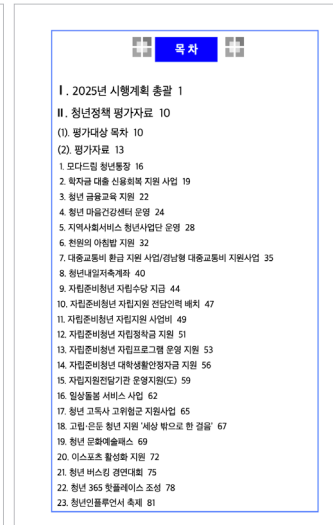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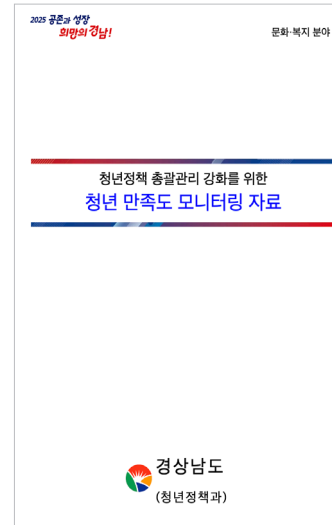
- ① 분야별 모니터링 자료(개별 메일 발송 및 플랫폼 게시) 참고하여  
청년정책 만족도 평가(네이버폼\*) 작성하기 (1인당 사업 10개 내외 평가)
- ② '미션활동' 게시판에 참여 인증샷(네이버폼 제출 후 화면 캡처) 남기기

교육 14, 문화예술 31, 일자리 12, 주거복지 13, 참여권리 13, 창업 8

교육 6, 문화예술 23, 일자리 5, 주거복지 9, 참여권리 6, 창업 3

91명  
1차 참여인원

52명  
2차 참여인원





## Mission 5.

### 8월: 2025 경남청년 페스타(청년의 날) 아이디어 제시



미션 내용

9. 27.(토)~9. 28.(일) 양일간 통영시에서 개최하는 2025년 청년의 날 행사[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에 경청넷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경남 청년 및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 및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1) 제시된 문항 중 2개 이상의 질문을 선택하여 '미션활동' 게시판에 300자 이상 작성하기

- ①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의 주제 및 슬로건을 제안한다면?
- ② 경남 도내 거주중이거나 경남 출신 인플루언서 중 알고있는 사람은?
- ③ 본인이 평소 즐겨보는 채널 중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에서 만나보고 싶은 인플루언서는?
- ④ 타 청년행사 참여경험 및 행사명과 행사에서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 내용은?
- ⑤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에서 진행하였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 ⑥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에서 경청넷 부스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지?
- ⑦ 추가적으로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에 제안사항이 있다면?

(2) 모임별 회의(온·오프라인) 참석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표 또는 다수의견에 따라 각 모임별 대표 아이디어 선정하기

교육 6, 문화예술 16, 일자리 3, 주거복지 4, 참여권리 3, 창업 1

**33**명  
참여인원



#### 창업 분과 1차 회의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청년의 날) 아이디어 제시하기

- 2025 경남 청년 페스타를 위한 해양레저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과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함.
- 워터밤, 바다 미끄럼틀,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 지역 자원 홍보 및 청년 참여 활성화 전략을 마련함.

경남 청년의 날 행사를 통영에서 할 계획으로 그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Z친화적인 콘텐츠를 기획하자.

통영 해수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이 최종선정이 되어 통영에서도 경남 청년의 날 행사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영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통영 시민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8월 미션

- ① 경남을 지키는 청년, 통영 앞바다의 충무공처럼
- ② 김필
- ③ 김필 유튜브 KIMFEELOfficial
- ④ 23년도 경남 시군 청년교류회에서 오프닝 밴드무대(곡이름 :우리의꿈)와 도지사님과 일대일 질의응답 ,마지막 청년교류시간 이 기억에남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⑤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경남청년의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음 만들 어서 반려동물 키우고있는 청년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소개하고 반려동물이 없거나 입양을 생각중인 청년들에게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분양을 원하는 예비반려동물 현장 입양시간 (경남내 시군 보호소에 관리중 인 애견관리하시는분이나 반려동물업계 전문가초청해서)
- ⑥ 이번년도 어떤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소개자료배치+ 남은 기간 어떤 활동이 있을 예정인지 소개하는 자료제시
- ⑦ 청년이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 확보와 그에맞는 부스신설 +관계전문가 섭 외를 해서 형식적인 느낌의 콘텐츠 확보보다

진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목을 끌만한 콘텐츠확보 ex) 경남출신 씨름선 수 또는 경남씨름관계자 섭외해서 경남청년 간에 친선시합개최 (소소한 상품 제공 必), 또는 피클볼이라는 생소한 신생스포츠 소개하는 콘텐츠와 부스확보 (스포츠간단체험할수있는 공간마련) 또는 캘리그래피 부스신설



[8월미션] 2025경남 청년 페스타(청년의 날) 아이디어 제시하기

- ①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의 주제 및 슬로건을 제안한다면?  
2025 경남 청년 페스타를 통영에서 진행하는 것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곳에는 문화예술 과 자연이 공존하며 강렬한 로컬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청년들의 무한한 꿈을 바다와 연결지어 "청년, 바다를 달다"를 제안하고싶다. 넓은 바다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청년들의 가능성과 도전 정신을 가 진 모습을 표현하면 좋겠다.
- ② 경남 도내 거주중이거나 경남 출신 인플루언서 중 알고있는 사람은? 소개하고 싶은 인플루언서로 <https://www.instagram.com/imfinethankyou.bell/> 이 사람을 제안하고 싶다. 작년 우연히 알게된 인플루언서이나 진주 출신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영어를 배우는 목적으로 미국의 여행을 찍으며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여행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재치있게 보여주고 있다.
- ⑤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에서 진행하였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통영에서 진행하는 만큼 바다와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남해안 권역으로 청년들이 위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 다. 바다를 끼고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청년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청년 바다 위케이션 체험존" 등의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남해안권에 위치한 청년 위케이션 명소 정보 제공과 실제 오피스 공간을 간단하게 꾸며 직접 섬과 일 을 경험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⑦ 추가적으로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에 제안사항이 있다면?  
바다, 특산물, 위케이션, 휴식 공간 등 통영의 로컬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청년들이 지역 속에서 섬과 영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디자인을 꼭 통일 시키면 좋겠다. 행사브랜딩과 홍보에 효과적일 것이다. 슬로건과 맞는 분위기로 키워드를 정해서 감성적이고 지역성 있는 페스타 가 되었으면 한다.  
제안 하는 색으로는 푸른 통영의 푸른 색상을 주 색상으로 하고 보조 색상으 로 해가 뜨고 지는 느낌의 오렌지 빛 해안가와 산호를 표현할 수 있는 베이 지와 핑크 빛을 보조해서 이번 페스타의 독창적 색상이 구성되면 좋겠다. 두번째로는, 이번 청년의날 행사를 기념할 수 있는 굿즈가 제작되어지면 좋 겠다. 이번 행사만을 위한 굿즈로 통영의 문화예술, 자연의 요소를 활용하여 행사 참여자들에게 좋은기억으로 남기는 축제가 되면 좋겠다.

[8월미션] 2025경남 청년 페스타(청년의 날) 아이디어 제시하기

- ① 2025 경남 청년 페스타 주제 및 슬로건 제안  
주제: "연결과 도전, 경남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내일"  
슬로건: "Connect & Challenge, 경남 청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라!"  
이 주제와 슬로건은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고립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 안을 해소하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결'은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 세대간 소통, 지역사회와의 유 대를 의미하며, '도전'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용기와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뜻합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 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남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미 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 ⑤ 2025 경남 청년 페스타 진행 프로그램 제안  
1.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세션 다양한 분야의 성공한 인플루언서 들이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며 진로 고민, 자기계발, 목표 설정에 대한 실질 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1 상담부터 소그룹 멘토링까지 다 양한 형태로 운영하여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 워크숍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며 개인 브랜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집중 교육 프로그램입니 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별 특성화 교육도 함께 진행하면 좋 을 것 같습니다.  
3. 청년 네트워킹 파티 & 동아리 매칭 같은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 청년들이 만 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인맥 형성과 협력 관계 구축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터디 그룹, 취미 동아리, 창업팀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 결성을 목적으로 경남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청년 정신건강 및 라이프 밸런스 세미나 번아웃, 취업 스트레스, 인간관계 고민 등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는 전문가 강연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청년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청년 고민 해결사 프로젝트 기존의 상담 방식과는 다르게, 비슷한 고민을 가 진 청년들끼리 팀을 만들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인간관계, 진로 등 주제별로 나누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 며 솔루션 찾기 게임처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습니다.

[8월미션] 2025경남 청년 페스타(청년의 날) 아이디어 제시하기

- ①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의 주제 및 슬로건을 제안한다면?  
〈경남 JUMP〉  
설명: "경남 JUMP!"는 경남 청년들의 가능성과 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슬로 건으로, '점프(JUMP)'라는 단어를 통해 청년의 도약, 성장, 비약의 이미지를 직 관적으로 전달한다. 점프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현재의 한계를 넘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JUMP'라는 영단어가 지닌 발랄 하고 역동적인 느낌은 젊은 세대와 잘 어울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연스럽 게 불러일으킨다. 이 슬로건은 '하늘로 점프', '더 큰 꿈으로 점프', '경남을 넘어 서 세계로 점프' 등의 확장된 메시지로도 연결될 수 있어, 다양한 행사 콘텐츠 및 홍보물에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다. 또한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당차게 내딛는 모습을 응원하는 상징으로 기 능할 수 있다. 경남이라는 지역과 청년의 활력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 강렬한 슬로건으로, 행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⑤ 2025 경남 청년 페스타에서 진행하였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내가 만든다, 내 굿즈! 체험존〉  
내용: 청년들이 직접 디자인하거나 참여해 나만의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  
체험 항목 예시: 미니 실크스크린 체험 - 예코백, 티셔츠, 파우치  
버튼·키링 제작소 - A4로 얼굴 일러스트 만들고 키링 제작  
DIY 향수·캔들 클래스 - 청년의 '향기'로 기억되는 페스타  
디지털 낙서 체험 - 태블릿으로 그래피티 그리고 즉석 출력  
레트로 감성 네임택 만들기 - 감성 폴라로이드와 함께
- 특징: 제작한 굿즈는 무료로 가져가거나, 소규모 플리마켓 부스로 연계해 직접 판매하는 '셀러 체험존'으로 확장 가능.  
자신의 취향을 굿즈로 표현하며, 창업/디자인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자연스럽 게 연결될 수 있음.





## Mission 6.

## 11월: 청년포럼 참석 및 토론 주제 관련 논의



미션 내용

서울신문과 삼성에서 경남·부산·울산 청년정책 협력 및 현안 논의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청년포럼」을 개최합니다. 경남에서 배우고 일하는 청년 당사자로서 직접 청년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많은 참석을 해주시고, 부·울·경 청년포럼 참석 후 토론후제 등에 대한 의견 및 참석후기를 작성해 주세요.

① 2025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청년포럼 참석하기

② 포럼 토론후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참석후기를 현장사진 1장 이상 첨부하여

'미션활동' 게시판에 300자 이상 작성하기

\* 부·울·경 청년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색, 문화로 바꾸는 경남·부산·울산

## 〈 2025 서울신문 경남·부산·울산 청년포럼 〉

- 포럼주제 : ‘경남·부산·울산에서 배우고 일하는 청년’
- 일시/장소 : 2025. 11. 13(목) 13:30~16:40 / 창원대 대학본부 2층 인송홀
- 참석인원 : 120여명(창원대학교 대학생, 경남·부산·울산 청년 등)

교육 6, 문화예술 16, 일자리 3, 주거복지 4, 참여권리 3, 창업 1

33명  
참여인원

## 2025 서울신문 경남·부산·울산 청년포럼 후기

2025년 11월 13일, 창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인송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경남·부산·울산 청년포럼'에 참석했다. '경남·부산·울산에서 배우고 일하는 청년'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지역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고민,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폭넓게 나누는 자리였다. 약 120여 명의 대학생 및 청년들이 함께해 현장의 에너지가 매우 활발했다.

## 1. 개최식 - 지역 청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

행사는 내빈 소개와 개회사·축사로 문을 열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 지역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져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 2. 청년 토크쇼 - “청년, 우리를 말하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연구자, 창업가,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사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과 지역에서 일하며 느낀 현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지역에서 창업할 때 겪는 어려움, 청년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공간·네트워크,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이 가져야 할 관점, 특히 “청년이 떠나는 이유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크게 와닿았다.

## 3. 기조강연 - 우석훈 경제학자의 ‘청년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우석훈 경제학자는 청년을 사회의 ‘미래 자원’이 아닌 ‘현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지역에 남는 청년을 단순히 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4. 주제 발표 및 토론 - 현실적인 대안 제시

[주제1] 경·부·울 청년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박종규 부총장은 지역대학과 산업계가 협력해 청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취업을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 [주제2] 문화로 바꾸는 지역의 미래

윤인철 뱀한창원 대표는 지역 문화산업의 가능성과 사례를 소개하면서, 문화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 프로젝트가 지역 활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토론에서는 지역 간 협력, 청년 인재 유입 전략, 지역문화 확장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들이 오갔다. 청년의 시각이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였다.

## 5. 마무리하며

포럼은 예정된 순서대로 16:40경 마무리되었다. 전체적으로 행사 구성과 흐름이 깔끔했고,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경남·부산·울산이 단순히 ‘청년 유출 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이 배우고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직접 듣고,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11월 미션] 청년포럼 참석 및 토론 주제 관련 논의하기

2025 서울신문 경남·부산·울산 청년포럼(11월 13일 목요일)에 참석했다. 포럼은 개회식(내빈 소개, 개회사·축사)을 시작으로 청년 토크쇼, 기조강연, 주제 발표 및 토론,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청년 토크쇼에서는 박지영 연구위원, 배경하 대표, 송진호 대표, 곽석환 대표, 신정훈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들려주었다. 특히 산업 발전과 청년 창업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인상적이었다. 신정훈 대표는 울산의 창업 프로그램이 초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창업 3년 차 이후부터는 '청년기업'이라는 타이틀보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외국계와의 경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청년기업이 3~5년의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석환 대표는 산업 변화의 핵심은 일자리 확대라고 짚으면서, 실제 창업 과정에서 막막함을 크게 느꼈다고 했다. 창업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이며,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수도권과 준비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체감하며, 지역에서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지자체와 선배 창업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하 대표는 비즈니스 감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원금이 생기면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능력 자체가 성장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송진호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는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렵고 긴 호흡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더욱 꾸준한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예술은 지역의 수준을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토크쇼 전반을 통해 지역 산업과 청년 창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지역 커뮤니티·선배 창업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만큼, 지역 차원의 튼튼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원에서도 이러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기조 강연에서 우석훈 경제학자는 오늘날 청년이 '귀한 존재'가 된 배경을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위기와 연결해 설명했다. 이를 들으며 수도권만을 향해 이동하기보다, 각자에게 맞는 지방의 강점을 찾아 정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 발표에서 박종규 창원대 연구산학부총장은 대학의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이 지역혁신과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발표 중심의 일방향적 구성 탓에 일반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질문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을 듣고 지역 청년의 현실과 가능성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 Mission 7.

### 12월: [1차]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활동성과 정리



미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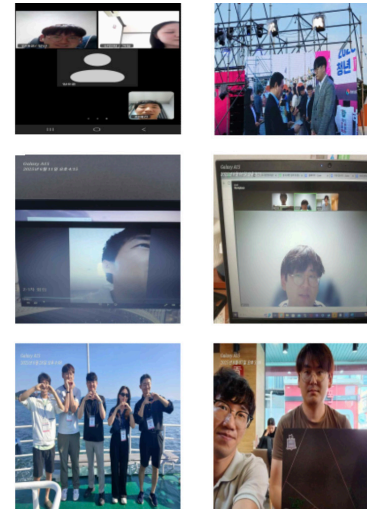
2025년 한해의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5 도-시군 청년네트워크 대회'가 2025. 12. 20.(토) 남해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대회를 위한 모임별 활동성과 공유 및 활동 내역 정리해 주세요.

- ① 모임별 회의(온·오프라인)를 통한 2025년 경남청년네트워크 활동성과 공유
- ② 모임별 활동 결과(붙임 서식) 작성하여 플랫폼 내 '미션활동' 게시판에 모임지기가 업로드

#### 〈 2025 도-시군 청년네트워크 대회 〉

- 일시 / 장소 : 2025. 12. 20.(토) 11:00~17:00 / 남해군 일원
- 참석인원 : 100여명(도 및 시군 네트워크 회원)
- 행사내용
  - (주제 발표) 경남도 청년정책 및 청년네트워크 활동소개 등
  - (청년시설 견학) 남해 청년센터 바라, 위케이션 코워킹스페이스 등

**100**여명  
참석인원



2025년 12월 7일, 창원 시티세븐의 한 카페에서 경남청년네트워크 회원 8명과 경남도 청년정책과 관계자가 모였습니다. '도-시군 청년네트워크 대회'를 앞두고 열린 이 회의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자기소개로 분위기를 풀고, 이어서 활동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시스템과 간소화된 조직 개편은 처음에는 혼란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을 살려내며 적응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별 미션을 통해 집중력 있는 네트워킹이 가능했다는 점도 인상 깊게 언급되었습니다. 온라인 회의가 많았지만 청년페스타와 교류회 같은 오프라인 행사 덕분에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들의 제안을 경청하며 순차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임은 경남 청년들이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따뜻한 회고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도 그간의 활동과 결과를 공유하며 2025년 경남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정책 참여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모임은 단순한 대회 준비가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Mission 8.

### [2차]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 결선 참석 및 후기 작성



미션 내용

취창업, 비즈니스, 귀촌 등 각자의 분야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경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청년 성장 스토리 콘테스트 결선'이 2025. 12. 10.(수) 경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진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 1회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 결선 참석 후 참석후기를 작성해 주세요.

- ①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 결선 참석하기
- ② 경남청년 성장스토리에 대한 소감 및 행사 참석후기를 현장사진 1장 이상 첨부하여 '미션활동' 게시판에 200자 이상 작성하기

#### 〈제1회 청년 성장 스토리 콘테스트 결선〉

- 일시 : 2025. 12. 10.(수) 14:00 ~ 16:00
- 장소 : 경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



#### 청년 성장 스토리 콘테스트 결선 참여후기



2025년 12월 10일 진주 경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 결선에 참석했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가 밝게 시작되었고, 10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취·창업, 비즈니스, 귀촌 경험을 진솔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도전과 성장을 담아낸 발표가 청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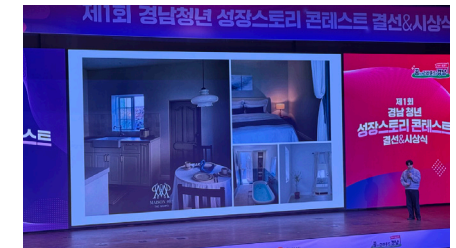
축하공연과 행사소개 영상도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시상식에서는 참가자들의 노력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경남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공감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하며,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장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경남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곳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지역의 한계와 현실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해 온 과정들이 진솔하게 공유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20년간 방치되었던 공간을 연간 10만 명이 찾는 지리산 대표 명소로 탈바꿈시킨 카페: 오도재 사례부터, 통영 대안마을을 '고양이 마을'로 브랜딩하며 지역 개발사업 선정에 기여한 고양이회관의 이야기까지,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들이 인상 깊었다. 또한 청년들의 활동은 지역 정체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귀촌 이후 밀양에서 직접 공간을 설계·운영하며 지역의 새로운 상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 진주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해외 수



출과 고부가가치 유통망을 개척한 청년 농업인의 도전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림·은둔을 극복한 뒤 사회복지 현장에서 같은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된 의미 있는 활동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도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 산업,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행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유튜브(실시간영상) 및 녹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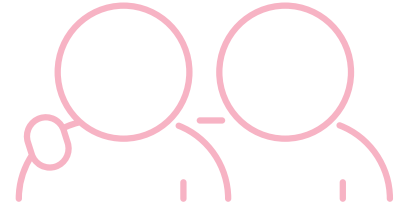




PART 4

## 2025 경청넷 활동 기록 ; 함께 한 순간들

- 01.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워크숍
- 02. 2025 경남청년 페스타
- 03. 도-시군 청년네트워크 청년마을 현장견학
- 04.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대회



## 청년, 다시 모이다 —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된 도전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워크숍

일시 2025년 6월 28일  
장소 창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한산관  
참석 도내 18개 시군 청년네트워크 회원 100여 명  
주요 내용 경상남도 청년정책 및 네트워크 운영 방향 설명  
‘청년 꿈 아카데미’ 특강 (황건호 ㈜지티엘 대표, 우정민 해녀)  
이순신 승전길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

2025년 여름, 창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한산관에 경남 곳곳에서 이어진 청년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경남청년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꾼 첫 공식 행사,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워크숍’은 단순한 하루의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회원들께는 익숙한 얼굴과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새로 합류한 청년들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6년의 시간을 지나 정책 중심을 넘어 지역 청년과의 화합까지 품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 있는 경청넷. 포문을 여는 2025년 첫 행사는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도 의미를 담았습니다. 임진왜란 승전지인 한산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기리는 공간은 경남청년들에게 도전과 책임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무대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워크숍은 오전부터 열기를 더했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정책과에서 올해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강조하였고, 이어진 '청년 꿈 아카데미'에서는 스타트업 창업가와 청년 크리에이터가 무대에 올라 실패와 극복, 다시 일어섬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청년들께 울림을 주었고, 도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이순신 승전길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협력과 팀워크, 웃음과 열정이 어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에는 각 시·군 청년들이 지역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공동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현장은 활기와 설렘으로 가득하였고, 기존 경청넷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의미를 확인하며 기대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새로 합류한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웃음과 토론, 진지한 메모가 뒤섞인 공간은 열정의 공기로 가득하였습니다.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워크숍은 단순한 하루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한 첫 공식 행사였으며, 정책 중심에서 문화와 교류까지 확장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정책 참여자에서 지역사회의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명칭의 변화는 곧 활동의 확장을 의미하였고, 청년들의 도전은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워크숍은 정책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어진 무대에서 청년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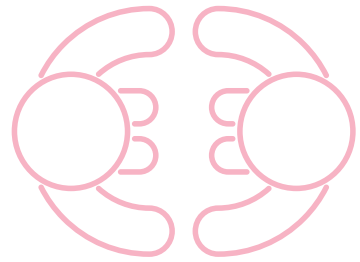
청년, 시작의 이름.

청년, 도전의 여정.

청년, 미래의 주체.

그렇게 2025 경청넷은 출발했습니다.





## 청년, 모두 즐기자 - 통영에서 막 오른 청춘의 환희

2025  
경남청년 페스타

일시 2025년 9월 27일~28일 (2일간)

장소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

주요 내용 청년토크 콘서트

청년 인플루언서와의 만남&특강(대공TV, 양팡, 정찬민 등)

청년교류의 장 ‘혼자 놀면 뭐하니’

청년의 날은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의 권리와 가능성을 사회가 함께 기념하며, 청년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뜻깊은 날. 그래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직은 불안정한 청춘의 일상을 보내지만, 이날만큼은 경남의 청년이 자기 삶을 성찰하고, 사회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청년의 꿈과 좌절, 도전과 희망이 한데 모여 하나의 큰 파도처럼 울려 퍼지는 하루. 젊기에 때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더욱 다채로운 가능성이 움트곤 합니다.

경상남도 역시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경남청년 페스타. 축제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 교류하며,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기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져 온 경청넷은 그간 페스타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공동체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이름을 바꾸고 역할을 넓힌 경남청년네트워크는 기존의 정책 참여자에 한정된 역할에 머물지 않고, 문화와 교류, 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주체로서 더 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경남청년 페스타는 그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젊음은 초록으로 번지는 파문으로**  
**빈손이어도 아름답고**  
**젊음은 팽팽한 시위에 얹힌 화살의 꿈이다**  
 — 권영하, 「젊음에 대해」

권영하 시인이 말하는 그 젊음의 이미지가, 2025년 가을 통영 바다 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의 어느 가을날, 통영의 바다는 청년들의 웃음과 함성으로 물결쳤습니다. 그 활약들을 살펴봅니다.

### ✓ 숨은 주역 ‘청년기획단’

2025 경남청년 페스타의 숨은 주역은 경청넷 ‘청년기획단’이었습니다. 경남청년네트워크 회원 가운데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경청넷 회원들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축제의 기획자이자 운영자였습니다.

청년기획단은 경남청년 페스타 기간 전후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체험부스 운영을 돕고,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홍보를 진행하며, 정책 포럼과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직접 챙겼습니다. 덕분에 페스타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장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경남청년네트워크가 청년들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면, 청년기획단은 그 에너지를 실제 축제의 무대 위로 끌어올린 셈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







고 실행한 덕분에, 이번 페스타는 ‘청년이 주인공인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짜 청년의 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 ✓ 청년정책 유공자 표창

2025 경남청년페스타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표창은 2025 경청넷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기에, 청년 스스로가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되었습니다. 총 22명의 청년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그중 장인영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은 청년네트워킹과 청년기획단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공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페스타 슬로건 공모에서 “청년의 힘으로, 경남의 미래를 열다!”라는 문구를 제안하여 최종 채택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표창장 수여식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청년들이 서로를 추천하고 인정하는 과정 자체가 축제의 정신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교류회 ‘혼자 놀면 뭐하니’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품은 통영 앞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루지를 즐기며, 어드벤처 타워에 오르는 순간마다 청년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환호가 번졌습니다. 낯선 이들이 친구가 되고, 서로의 이야기가 파도처럼 이어지는, 말 그대로 촘촘한 그물의 씨실과 날실이 아름답게 네트워킹되는 자리였습니다.

2025 경남청년 페스타에서 경남청년네트워크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책 제안자, 역량 강화 참여자, 교류의 주체로서 청년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워크숍과 교류회에서 이어진 흐름이 페스타에서 확장되며, 청년들이 정책과 문화, 교류와 도전을 동시에 경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번 페스타는 청년 공동체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이었고, 강구안 문화마당을 가득 메운 열정과 웃음은 앞으로도 경남 곳곳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 청년, 경험을 품다 - 고마워 할매가 전한 따뜻한 하루

도-시군 청년네트워크  
청년마을 현장견학

일시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장소 함양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 하미양 체험학습장

주요 내용 청년마을 견학 - 함양 청년마을 둘러보기  
문화체험 - 레크리에이션 & 뱅쇼 만들기

2025년 11월, 경남청년네트워크는 도·시군 청년네트워크 회원 100여 명과 함께 함양군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청년들은 특별한 프로그램 '고마워, 할매'를 체험하며 지역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청년마을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현장견학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빼곡히 채워진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양 상림공원 인근에서 점심을 나눈 뒤, 청년마을 소개와 산책, 그리고 본격적인 시설 견학에 나섰습니다. 핵심 프로그램은 바로 '고마워, 할매'. 이는 시골에서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함께 나누며 휴식과 교류를 즐기는 '먹케이션'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식사 체험을 넘어 지역 자원과 연계된 창업 아이디어까지 담고 있는 청년마을 프로젝트였습니다. 숲속 언니들 박세원 대표가 이끄는 이 공간은 청년들이 머물며 지역과 연결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단순히 견학에 그치지 않고, 전문 MC가 진행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활기를 더했습니다. 이어 하미양 와인벨리에서 와인 농장을 둘러보고 시음을 즐겼으며, 마지막으로 따뜻한 뽕쇼 만들기 체험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루 동안 이어진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지역 자원과 문화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함양 청년마을 현장견학은 단순한 체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경험하고, 세대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방식의 교류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고마워, 할매’라는 이름처럼, 따뜻한 밥상과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지역 공동체의 힘을 느끼고, 동시에 청년마을이 지닌 창업·문화적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경남청년네트워크의 이번 견학은 청년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 청년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은 향후 청년마을 사업과 정책 제안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임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 경청넷의 한 해 - 무대 위에 오르다

###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대회

일시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장소 남해 꿈나눔센터

주요 내용 청년정책 발표 - 도·시군 청년정책 및 청년네트워크 활동성과  
청년시설 방문 - 남해 청년센터 바라, 서상 위케이션 센터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 경청넷은 시작부터 끝까지 창대했습니다. 새로움으로 가득했던 출발, 도전과 기회가 교차한 과정, 전환점의 연속이었던 여정, 그리고 성과공유회라는 결실의 순간까지 모두 그러한 까닭입니다.

2025 경청넷의 가장 마지막 행사였던 2025년 경남청년네트워크 성과공유회는 단순한 연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어진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교류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도와 18개 시군 청년네트워크 회원 100여 명이 남해 꿈나눔센터에 모여, 올 한 해의 궤적을 되짚고 성과를 나누며 내일을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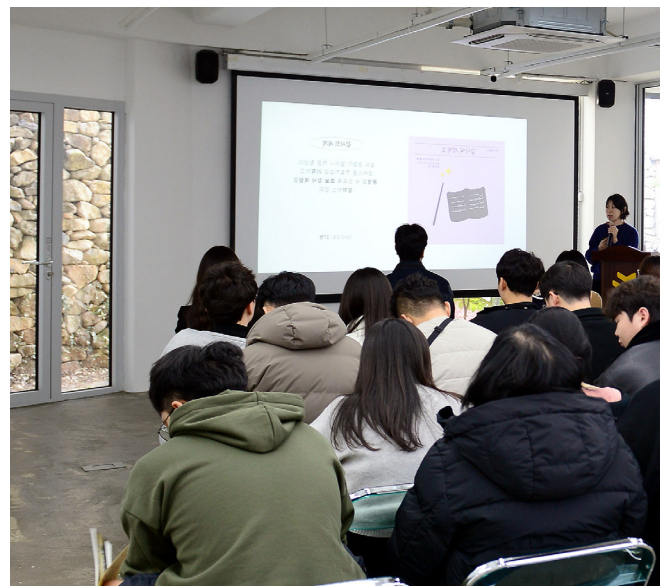


행사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식전 공연이 분위기를 열었고, 도지사의 영상 축사가 이어지며 청년들의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청년네트워크 활동 영상이 상영되어 지난 시간의 열정과 웃음을 되살렸습니다.

이어진 성과 발표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제안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청년정책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경험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 활동 사례 4건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성과공유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습니다. 청년들은 남해 청년센터 '바라'와 서상 워크케이션센터를 방문해 청년공간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자원과 정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 순간, 청년들의 눈빛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오후 내내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의 장소는 물미해안전망대. 끝이라는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것을 덮어줄 만큼 전망대의 풍경은 벅찬 감동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8개월간 이어진 경청넷의 여정을 화상하는 데 더할 나위 없던 무대, 그 위에서 청년들은 줄 하나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파노라마 같은 바다는 경남 곳곳에서 함께했던 청년들과의 시간을 한 장의 기억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음과 도전,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 하나의 서사로 남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그곳과 그 시간이 만들어 준 선물이었습니다.







불게 지는 해와 함께 마무리된 2025 경청넷 성과공유회. 청년들의 지속적인 열정이 내일을 향해 다시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감동의 순간으로 기록된 하루는 2025 경청넷의 여정을 집약한 무대였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과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결국 이날은, 청년들의 도전과 성과가 경남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감동의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1년 너무 많이 많은습니다, 경청 피티팅  
-이정민-

경청넷과 함께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 즐거웠습니다  
-최정호-

경청넷 개선바들아 즐거웠습니다  
-이옥중

경청넷 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하고 활동으로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런하기도 한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여러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  
내면의 성숙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년에 인연이 있다면 비건 밥 보내고서 인연이든/불교는  
세상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면 경청넷 후미로  
-정수민-

2024년의 경청넷도  
종사들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청넷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열려있었  
앞으로 더 유익해질 바랍니다!  
-왕정현-

경청넷 팀원 네팅!!  
-강예진-

2025년 경청넷과  
함께가 즐거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모임지기 왕정현님  
과생 많이있어요!  
경남 청년 화이팅  
-황예지-

경청넷 1년동안 유익한 활동이 많았고  
경청넷 덕분에 경남에 다른 곳보다  
형식상과 장해없었다! 이렇게 즐거웠  
함께 많은 것을 경청넷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왕! 왕정현  
모임지기 고맙습니다!  
-김정민-

2024년 경청넷. 청년 네팅은  
한해동안 큰 추억 많이  
남겼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했기 같아요!  
2025년도 감사합니다.  
-김정민-

2025년 경청넷 오프라인 워크샵  
처음 참석했는데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습다.  
-김동민-

경남에 다양한 청년들과  
만나서 즐겁게 네팅팅  
했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안도현-

경남 청년 네팅은  
너가 즐겁고 행복했어!  
좋은 추억 끝났습니다  
다음 내년도 행복하세요~  
-김하서-

경청넷과 함께 생애 등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었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해기도 화이팅입니다~  
강해시청청청청청청 청청청

경청넷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은-

청년모! 바로 지금!  
-이창현-

2025년 경청넷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유익한 활동 만들어주시고 청년정책과  
감사합니다  
-김혜정년 -  
순대성

날마다 에세이하는데  
아래주신 도와주신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 2026 NICE~





# Epilogue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의 말입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과정이란 의미.  
2025 경청넷은  
붉게 타오르는 열정을 품고  
푸르게 이어가는 파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같이 성장했습니다.  
훗날 회상했을 때,  
2025년 봄부터 겨울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지속적인 열정이기를 희망합니다.  
경남의 푸른 미래,  
2025년 경청넷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rpe Di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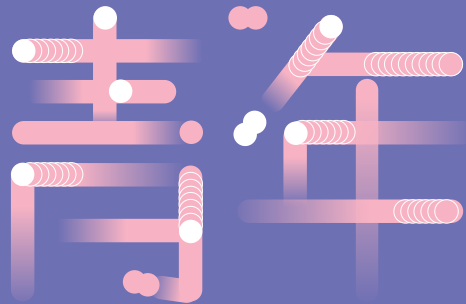
# 청년이 만든 청년靑年 2025

발 행 일 2025. 12.  
발간등록번호 76-6480000-000656-10  
발 행 처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주 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디 자 인 디자인나무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경상남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간등록번호  
76-6480000-000656-10



청년이 만든 청년靑年 2025